

# 사회주의사회에서 원의 구매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한 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고 현금류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서는 상품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381페이지)

현시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원의 구매력을 높이는것이다. 그것은 원의 구매력수준이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과 관련된다.

원의 구매력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원의 구매력수준이 안정되거나 높아야 물자의 운동과 화폐자금운동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기관, 기업소들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가치적공간들을 옹계 리용하여 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갈수 있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도 원의 구매력을 전제로 하고있다. 원의 구매력이 안정된 조건에서만 로동에 의한 분배를 옹계 실현할수 있고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여나갈수 있다. 원의 구매력수준이 안정되거나 끊임없이 높아져야 근로자들이 분배받은 자금으로 더 많은 상품과 봉사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그들의 실질소득도 높아나갈수 있다.

원의 구매력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상품생산을 늘이고 상품공급과 사회급양봉사를 개선하며 상품가격과 봉사로수준을 낮추고 생활비수준을 높여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 원의 구매력수준의 제고는 상품류통과 현금류통의 일치성을 보장하여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상품류통과 현금류통의 일치성은 원의 구매력수준에 의하여 담보된다. 원의 구매력이 안정되지 못하고 화폐류통이 혼란된 상태에서는 상품공급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없다.

원의 구매력은 근로자들의 생활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생활비수준의 장성은 류통중화폐량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런데 원의 구매력수준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수준을 높이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일수 없으며 필요류통량과 류통중화폐량사이의 심한 배리를 조성하여 화폐류통을 혼란시킬수 있다. 화폐류통의 혼란은 화폐가치를 저락시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의 장성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비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질소득을 높이려면 반드시 원의 구매력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원의 구매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여러가지 질좋은 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화폐의 상품적담보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화폐의 상품적담보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이다.

중앙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올리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화폐의 상품적담보를 마련하고 원의 구매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  
도이다.

상품원천을 늘이는것은 류통계에 들어가는 상품량을 늘이는것으로서 그만큼 화폐의  
상품적담보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상품원천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현실적인 현금류통을 담보하는 상품량을 원만히  
확보하는것이다. 원의 구매력수준의 보장을 위한 현물적기초를 이루는것은 인민생활에 필  
요한 소비품이며 상업망에 들어가는 상품들이다. 상품류통에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들, 비  
록 소비품이라 하여도 상업망에서 팔지 않는 제품들은 원의 구매력수준보장의 현물적기  
초로 될수 없다. 그것들은 현실적인 현금류통을 동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화폐의 상품적담  
보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만일 국가상업망에 들어가지 않는 생산제품들과 그밖의 제품들을 화폐의 상품적담보  
로 삼으면 그만큼 현실적으로 화폐류통의 공고성에 틈이 생기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화  
폐의 상품적담보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국영상업망들에 가득 채워놓기 위한 투쟁을 힘있  
게 벌려야 한다. 이 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관건적문제는 원료원천기지를 잘 꾸려 원료생  
산을 늘이며 경공업부문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만가동시키는 문제는 원료와 자재를 얼마나 잘 대  
주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자체로 원료, 자재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며 중  
앙과 지방의 모든 경공업공장들은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상업  
망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전반적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며 우리의 자원과 원천에 의거하여 인민소비품들의 가지수  
와 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그 질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은행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제  
때에 보장하여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공업공장들에서 현  
대화, CNC화를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주어 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원의 구매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근로자  
들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에 맞게 상품공급을 따라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국가의 계획적인 활동에 의하여서만 상품이 류통계에 제대로 공  
급될수 있고 수요와 공급도 계획적으로 맞물려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사회주  
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사이에 적대적모순이 있을수 없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고 리윤추구가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되  
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사이의 관계가 끊임없는 불균형상태에 놓여있지  
만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사이의  
균형이 목적의식적으로 유지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는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것  
은 인민경제계획화를 통하여 극복될수 있다. 만일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이 극복되지

않고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상품공급을 앞서는 현상이 장기성을 띠면 그만큼 생산물로 실현되지 못한 주민의 화폐소득이 루적되어 원의 구매력수준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공급이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상품공급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원의 구매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류통중화폐량을 필요류통량에 맞게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이다.

통화조절은 중앙은행이 화폐류통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류통화폐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통화조절은 발권은행이 현금계획과 발권계획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 화폐류통법칙의 요구에 기초하여 류통에 필요한 화폐량에 맞게 중앙은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폐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절한다.

통화조절은 원의 구매력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전반적인민경제를 더 잘 조직운영하고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중앙은행이 류통중화폐량을 필요류통량에 맞게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통화조절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통화조절은 분기계획을 기준으로 하면서 일별로 류통령역에서 늘고줄어드는 화폐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분기적으로 규정된 계획한도안에서 생활비, 려비, 기타 현금지불을 위하여 지출되는 실제적인 화폐량이 날마다 변동될수 있기때문이다.

통화조절은 발권은행의 아래단위로부터 웃단위로 올라가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매개 지점들이 가지게 되는 류통면화폐의 한도액을 넘어서 자금이 지출되거나 현금수입이 지출을 초과한 결과 류통면화폐한도액이 늘어났을 때에는 늘어난 량만큼 은행지점범위에서 조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중앙은행에서 전국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절한 후에 국가적으로 규정된 류통면화폐한도총액을 넘어서 현금수입이 초과될 때에는 그 편차액만큼 발권량을 줄이는 방향에서 통화를 조절하여야 하며 그 초과량은 예비화폐로 전환하여야 한다. 반대로 현금이 류통면화폐한도총액이상으로 지출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예비화폐에서 류통면화폐에 보충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원의 구매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은행이 자기 수중에 나라의 모든 화폐를 집중시키는 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이다.

나라의 모든 화폐를 은행에 집중시키는것은 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그것은 화폐를 은행에 집중시키는것이 현금류통을 그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화폐를 은행에 집중시키는것은 현금류통의 일반적원리이며 현금류통조직의 원칙이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발행되며 류통에 나간 다음 상품매개기능을 수행하다가 다시 은행에 되돌아가는 복귀운동을 한다.

현금류통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화폐를 은행에 집중시켜야 현금의 환류속도를 높이고 적은 화폐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과 류통을 보장할수 있다.

화폐를 은행에 집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기관, 기업소의 현금보유한도를 정확

히 규정해주고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을 제때에 은행에 입금시키도록 하는것이다.

은행은 기관, 기업소들의 현금보유한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여 적당한 화폐량을 가지고있도록 하는것과 함께 불가피하게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가지고있는 현금을 빨리 은행에 입금시키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폐를 은행에 집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저금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저금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저금리자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저금리자률을 설정하는데서는 저금형태를 세분하고 저금액의 규모, 저금기간에 따라 리자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저금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저금한 돈을 아무때나 찾을수 있게 하는것은 신용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

신용이 원래 믿음에 기초하여 조직되는 화폐거래관계인것만큼 신용에서 믿음을 잃으면 신용사업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은행은 저금한 돈을 아무때나 찾을수 있게 지불준비금을 충분히 가지고있어야 하며 신용의 담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